
재외동포의 바람직한 한국어 교육을 위한 제언¹⁾

최정순 · 배재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한국어교육원장

1. 재외동포 현황과 한국어 교육

2008년 현재, 재외동포²⁾는 168개국에 6,884,36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³⁾. 이는 세계 3위에 달하며, 인구수에 비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재외동포가 다수인 국가를 살펴보면, 중국, 미국, 일본 순이며, 외교통상부가 밝힌 다수 거주 국가별 현황은 <표1>과 같다.

-
- 1) 이 원고는 2008 가을호(18-3)의 특집 주제, '국외 한국어 교육과 세종학당'으로 청탁되었으나 편집자의 실수로 누락되었던 점을 필자와 독자들에게 사과드립니다.(편집자 주)
 - 2) 재외동포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동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이 정하는 자)로 나뉘며, 재외동포재단법은 재외국민과 한민족 혈통을 가진 사람을 모두 재외동포라 한다.(외교통상부, 재외동포 개념)
 - 3) 이 수는 2008년 9월 20일 현황으로, 외교통상부 재외동포 현황 통계 자료는 매 시간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 2007년도의 정확한 통계 자료는 외교통상부(<http://www.mofat.go.kr>) 재외동포 정책 19번(재외동포 현황(2007), 2007. 5. 1. 기준) 자료를 보면 확인 가능하다.

필자는 재외동포 대상의 한국어 교육 현황에 대한 보고와 문제점,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제언의 글을 요청받았다. 따라서 본고는 자료 중심으로 재외동포 교육의 현황을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언급한 후 대안 마련을 위한 제언을 하는 글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현황 자료를 상당 분량 제시하는 이유는, 이미 주지하는 바일 수도 있지만, 이 글을 읽는 독자의 이해를 돕고 글을 쓰는 사람이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그간 필자는 재외동포 대상의 한국어 교육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재외동포재단이 주관하는 한국어 교육 사업을 담당하여 재외동포 청소년 대상 한국어 학습 사이트를 개발한 이력이 있고 또한 최근에는 국내 이주 결혼 여성 대상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한국어 교재를 개발한 바가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미약하나마 2008년 현재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의 문제점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는 재외동포의 교육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그간의 연구자들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적시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1〉 재외동포 다수 거주 국가별 현황(2008년 9월 현재)

순위	국가명	동포 수(명)	순위	국가명	동포 수(명)
1	중국	2,764,990	18	아르헨티나	21,592
2	미국	2,045,866	19	키르기스스탄(키르기스)	20,900
3	일본	597,992	20	말레이시아	14,934
4	캐나다	210,176	21	프랑스	13,981
5	러시아	209,025	22	싱가포르	12,656
6	우즈베키스탄	186,370	23	멕시코	12,070
7	베트남	135,678	24	과테말라	9,944

8	호주(오스트레일리아)	105,558	25	인도	7,375
9	카자흐스탄	102,280	26	이탈리아	5,502
10	필리핀	91,477	27	파라과이	5,431
11	브라질	50,523	28	괌	4,638
12	영국	41,995	29	스페인	3,606
13	우크라이나	33,131	30	남아프리카공화국	3,480
14	뉴질랜드	32,972	31	대만(타이완)	3,166
15	인도네시아	30,700	32	캄보디아	3,024
16	독일	29,800	33	기타(3,000명 미만 국가)	48,530
17	태국	25,000	전체	해외 동포 수(168개국)	6,884,362

* 자료 출처: 외교통상부(<http://www.mofat.go.kr/>) 재외동포 현황
다수거주자별 통계 참조

2. 국내 재외동포 교육 지원 관련 기관

국내에서 재외동포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은 그 소관 부처에 따라 다양하다. 주요 기관들로는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의 국립국제교육원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외교통상부의 재외동포재단,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국립국어원 등이 있다. 이들 기관들은 재외동포 교육과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여 실시하거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독자들의 이해와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이들 각 기관들을 소개하고 담당 업무를 정리하여 제시한다.

2.1. 국립국제교육원(<http://www.niied.go.kr>)

국립국제교육원은 구 국제교육진흥원으로 2008년 7월 ‘국제교육진흥원’으로 직제 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기관은 재외동포 교육과 국제 교육 교류·협력을 위하여 설립된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기관으로서 재외동포 교육 전문기관이다. 이 기관은 재외동포 교육의 내실화, 국제 교육 교류 및 협력의 활성화, 외국인 유학생 유치 강화를 목표로 내걸고 있다.

국립국제교육원에서는 국제화 인적 자원 개발 및 육성을 위해 재외동

포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초청 교육과정(장기교육과정: 9개월 28주 수업, 단기교육과정: 3개월 12주 수업, 교육 내용: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사, 현장 체험 학습 등 특별활동/계절제 교육과정: 재외동포 대학생 단계 학교 외)을 시행한다. 그리고 해외의 한글학교와 한국학교의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현지 연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재외동포 교육용 교재를 개발하거나 보급하기도 한다. 또 2002년부터 재외동포 및 외국인 대상의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인 KOSNET⁴⁾을 개발하여 인터넷으로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로 서비스하고 있다.

2.2. 재외동포재단(<http://www.okf.or.kr>)

재외동포재단은 1997년 10월 재외동포재단법에 의해 외교통상부 산하 기관으로 설립된 재외동포 지원 전담 기관이다. 주요 목적은 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단은 조사 연구, 교육, 문화, 차세대, 한상, 한인회, 정보화, 홍보 사업 등 동포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 초청, 협력 사업을 펼쳐 왔다.

그중에서 재외동포들의 교육은 교육문화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교육문화 사업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재외동포 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재외한글학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재외동포사회 현지 한글학교연합회 등이 주관하는 한글학교 교사 연수를 지원한다. 그리고 교육 관계자들을 국내로 초청하여 워크숍 및 연수 기회를 갖도록 하고, 장래 재외동포 사회와 모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해 우수 장학생에게 장학 혜택을 주기도 한다. 또한, 재외한글학교 표준 교육과정 및 한국어 교육 콘텐츠를 기획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Korean

4) <http://www.kosnet.go.kr>

Festival, 전통문화 연수 및 특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온라인 한국어 학습 사이트(<http://study.korean.net> 또는 <http://www.teenkorean.net>)를 운영하여 인터넷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3. 한국교육과정평가원(<http://www.kice.re.kr>)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및 교과용 도서를 연구·개발하고, 초중고 교육평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각종 평가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이 기관에서 수행하는 재외동포 교육 관련 업무는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재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하여 외국인용 한국어 교재와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재의 기초 분석 자료 구축, 한국어능력시험의 숙달도 기준과 관련성을 가진 교재의 위계화 연구, 재외동포용 한국어 교재의 교육과정 시안 개발 등의 활동이다. 개발한 교재와 교과서를 비롯한 각종 교재(교사용 지도서, 시청각 자료 포함)를 한국학교, 한글학교, 한국교육원 등 재외동포교육기관에 보급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재외동포 교육을 담당하는 각 소관 부처에 따른 기관과 그 주요 업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2〉 국내 재외동포 교육 관련 기관과 주요 업무

소관 부처	기관명	재외동포 교육 관련 주요 업무
교육과학기술부 - 재외동포교육과	국립국제교육원 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화 인적 자원 개발 및 육성 - 장기교육과정 및 단기교육과정 - 계절제 교육과정 · 해외 현지연수(한글학교 교원) 및 재외동포 교육용 교재 개발 보급 · 한국어 교육정보시스템 (재외동포교육기관: http://www.kosnet.go.kr) 운영 및 「Education in Korea」 발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동포용 교재 개발 및 교재 공급 · 한국어능력시험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대회, 교사 연수, 교재 보급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 한글학교 교사 연수 지원 · 한글학교협의회 관계자 초청 워크숍 · 재외동포 교육 지도자 초청 연수 · 재외동포 장학 사업 · 중등 지역 등 민족학교 지원 · CIS지역 한국어 교사 초청 연수 · Korea Festival · 민족문화 보존, 유지 활동 지원 · 전통문화 연수 및 특강 · 재외한글학교 표준 교육과정 및 한국어교육 contents 기획,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보급(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 · 한국어 교육자료 개발 · 한국어 전문가 파견 및 한국어 교사 초청 연수
	한국어세계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국외 보급 - 한국어 진흥 및 보급 - 교포 및 그 자녀 대상의 한국어 교육 - 한국어 교육 능력 인증 시험

5) 구 국제교육진흥원

3. 국외 재외동포 교육기관

세계 각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재외동포 교육기관⁶⁾으로는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등이 있다. 2008년 6월 현재 국외 한국어 교육 기관의 현황을 간추리면 <표3>과 같다.

<표3> 국외 한국어 교육기관(2008년 6월 현재⁸⁾)

교육기관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한국문화원	세종학당
개소 수	29개 (14개국)	34개 (14개국)	2,097개 (107개국)	12개(9개국)	19개(6개국)
관련 부처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조정	한국어국의보급사업협의회 ⁷⁾				

3.1.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교육과학기술부의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의 주요 기능을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한다.

한국학교는 재외 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정규 교육 기관을 말한다.(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참고) 한국학교는 한국인 후세들의 민족 교육, 즉 한국인의 얼을 심고 뿌

6)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조에 의하면, ‘재외교육기관’이라 함은 재외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한글학교·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7) ‘한국어국의보급사업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어민족문화팀이 간사 기관이고, 교육과학기술부(재외동포교육과), 외교통상부(문화협력과, 재외동포협력과), 문화체육관광부(국어민족문화팀), 국립국제교육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협력단, 국립국어원, 한국어세계화재단 10개 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8) 이 중 한글학교 현황은 2007년 현황이다.

리를 인식시키는 것을 이념으로 하고 있다. 한국학교는 14개국에 29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국어’ 과목이 재외 국민에게 교육되고 있다.

〈표4〉 한국학교 현황(2008. 04. 현재)

국가	한국학교		
	학교 수(개)	학생 수(학급 수)	전임교원 수 (파견 교원 수)
일본	4	1,987(64)	149(12)
중국	10	5,359(233)	501(16)
대만	2	73(12)	16(2)
베트남	2	1,218(55)	99(5)
사우디아라비아	2	19(11)	6(2)
기타 ⁹⁾	9	2,113(124)	197(16)
합계	14개국, 29개교	10,769(499)	968(53)

* 자료 출처: 재외동포재단(<http://www.okf.or.kr/>) 자료 참조.

세계 각국에 설립되어 있는 한국교육원은 14개국, 34개원에 이른다. 그 중 일본은 한국교육원이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으로 13개원이 있으며, 중국과 아시아·중동 지역에는 교육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한국교육원은 한국어 등의 보급, 한글학교의 교육 활동 지원, 한국인 유학생의 상담 및 지도,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활동 지원, 해외 교육 정보의 수집 및 보고, 그 밖에 해외 교육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이 주요 업무이다. 특히 한국어 등의 보급, 한글학교의 교육 활동 지원이 한국어 교육과 관련되는데, 주로 재외동포나 재외 국민의 모국 이해를 위한 민족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9)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러시아, 이란, 이집트 각 1개

〈표5〉 한국교육원 현황(2008. 04. 현재)

국가	한국교육원						
	교육원 수	파견자 수	한글학교			강습소	
			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	학교 수	학생 수
일본	13	21	86	5,432	236	216	7,291
미국	6	7	681	41,680	6,589	-	-
러시아·CIS ¹⁰⁾	7	9	449	30,717	762	-	-
캐나다	1	1	96	5,882	636	-	-
호주	1	1	57	4,591	443	-	-
영국	1	1	20	674	141	-	-
프랑스	1	1	14	413	68	-	-
독일	1	1	36	1,496	192	-	-
파라과이	1	1	5	323	23	-	-
아르헨티나	1	1	17	1,022	155	-	-
브라질	1	1	22	1,288	147	-	-
합계	14개국, 34개원	45	1,483	93,518	9,392	216	7,291

* 자료 출처: 재외동포재단(<http://www.okf.or.kr/>) 자료 참조.

3.2. 한글학교

한글학교는 재외국민에게 한국어·한국 역사 및 한국 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등록한 비정규 학교를 말한다.(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참고) 현지에서 교민, 회사, 법인 혹은 교회·성당이 자생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설립된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대부분 주말에 한글교육, 한국의 역사·문화 등 한국어 및 민족 교육을 실시하고

10)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1991년 소련(USSR)이 소멸되면서 소련에 속해 있던 공화국 중 12개국이 결성한 정치 공동체(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크스탄, 몰다비아, 그루지야)

있다. 한글학교는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외공관에 등록하면 재외동포재단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받고, 국립국제교육원에서 교과서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한글학교의 수는 현재 전 세계 107개국에 약 2,072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국의 사설학원과 같이 수시로 설치되거나 폐지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 파악은 어렵다.

〈표6〉 한글학교 분포 현황(2007. 09.)¹¹⁾

한글학교							
국가	학교 수	교원 수	학생 수	국가	학교 수	교원 수	학생 수
일본	83	247	4,824	프랑스	11	54	360
미국	1,011	8,771	54,947	독일	36	196	1,516
캐나다	105	612	5,760	러시아	185	512	15,799
파라과이	4	24	207	카자흐스탄	90	182	3,897
아르헨티나	16	132	918	키르기스스탄	52	90	2,165
브라질	23	186	1,435	우즈베키스탄	144	160	12,069
영국	21	160	754	호주	64	474	4,746
기타	252	2,372	17,787	계	2,097	14,172	127,184

3.3. 한국문화원¹²⁾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문화원은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9개국에 12개가 개원되어 있다. 한국문화원의 주요 기능은 주재국의 국민들이 한국을 이해하고 경제,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등 양국의 상호 협력과 교류, 우호 증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관련 전시회, 한국 영화 상영, 한국 음식 축제, 전통 음악, 무용, 강연, 한국어 강좌 등 다양한 문화

11) 이병규(2008: 688) 〈표7〉 인용.

12) 이병규(2008:685-686) 인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한국문화원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어 강좌 현황을 정리하면 <표7>과 같다.

<표7> 한국문화원의 한국어 강좌 운영 현황(2008. 06. 현재)

지역	중국 (상해)		중국 (북경)				일본 (동경)				일본 (오사카)				베트남 (하노이)		러시아 (모스크바)		
	종류	초	중	초	중	고	기타	입문	초급	중	상	1	2	3	4	초	중	초	중
과정	반수	10	1	4	2	1		2	2	4	2	12	12	12	12	8	2	3	2
학생 수		300	10	70	60	50	50	30	30	40	30	120	120	100	100	270	50	50	30
강사 수		7명		6명				4명				5명				4명		5명	
지역	미국 (뉴욕)		미국 (LA)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종류	초	중	초	중	고	기타	초	중	고	기타	초	중	고	기타	초	중	초	중
과정	반수	×	×	3	3			1				3	2	1		2	2	1	1
학생 수		×	×	174	75			25				25	20	15		14	16	5	5
강사 수		×		6명								3명				2명		2명	

3.4. 세종학당

세종학당은 국외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위한 ‘개방형 한국어 문화학교’로 소수 지식인 중심이 아닌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보급하는 사회교육원 형태의 현지 교육 시설’이다. 재외 한국문화원(9개국 12개소), 현지 한국어 교육기관(대학 포함) 등과 연계하여 2007년에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세종학당은 아시아 전역의 한국어 학습 열기 고조에 부응하여 문화상 호주의에 입각한 쌍방향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한국어 학습 수요층의 다변화에 부응하여 현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보급하여 한국어 문화 권역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한국 문화 산업 시장 확대 및 외국 진출 한국 기업 등 외국인 고용 한

국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자 한다. 이념적으로는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보급하여 한국 문화의 보존과 발전을 꾀하고 다양한 세계 문화의 공존과 번영을 이루고자 한다. 세종학당은 국외 한국문화원을 거점으로 한 개방형 문화학교로, 소수 지식인이나 학생, 재외국민, 재외동포 중심이 아닌 현지 일반 대중 누구든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쉽게 접근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교육원 형태의 전진 기지로서의 기능을 한다.¹³⁾

현재 세종학당은 몽골 세 곳, 중국 열두 곳, 키르기스스탄 한 곳, 카자흐스탄 한 곳, 미국 한 곳, 영국 한 곳 총 열아홉 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 9월 러시아 한 곳, 중국 산둥 지역에 한 곳이 추가 개설될 예정이다. 현재 19개의 세종학당에서 수료했거나 학습하고 있는 수강생 수는 5,000여 명 가량이다. 세종학당은 동북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2011년까지 100개교를 설립하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에 100개교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4. 문제 제기

그간 재외동포 대상의 한국어 교육은 많은 연구자와 기관에 의해 진단되고 비판되었듯이 적잖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안고 있다. 재외동포 대상의 전반적인 교육에 대해서는 대학원 석박사 학위논문들에서 문제의 제기나 대안 제시 등을 발견할 수 있고, 재외동포 대상의 한국어 교육에 관한 연구들은 정책 과제나 학위논문, 소논문 등을 통해 다루어지면서 현황과 문제 제기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¹⁴⁾.

13) 세종학당의 성격, 운영 방법, 교육 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세종학당 운영 길잡이(2007, 국립국어원) 참고(이병규, 2008:687 재인용).

14) 김대성(1996), 김신일·안귀덕(1998), 한병천(1999), 최중봉(2001), 진동섭(2003) 등은 재외동포교육의 전반을 다룬 내용들이고, 김중섭(2001), 조항록(2002), 안정현(2003), 조항록(2004), 박갑수(2006), 김호정(2007), 노윤환

대개의 정책 과제 보고서나 학위논문, 소논문들은 지역별 특성에 집중한 탓에 종합적인 문제의 제기나 대안의 제시에서 객관성을 갖기 힘든 점이 있고, 연구 방법론의 한계나 연구 대상 국가가 일부 국가(특히 북미 국가나 일본 등)에 편중되어 균형 있고 체계적인 대안 제시를 하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하지만 이들 연구들에서 나타난 문제의식은 대동소이하고, 필자의 입장에서조차 짧은 시간에 체계적인 연구를 할 수 없었던 한계를 지니지만, 그간에 조사하고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재외동포 대상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문제점들을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재외동포 대상의 교육과 관련한 문제 중 본고는 한국어 교육에 제한되므로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앞 2장과 3장의 현황을 중심으로 문제점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한국어 교육 외적인 부분-정책이나 법률적인 부분 등-과 한국어 교육 내적인 부분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겠다.

가. 한국어 교육 외적인 문제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진동섭 외(2006)에서 상세하게 정리되고 지적되었다. 진동섭 외(2006)는 한글학교나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등을 포함하는 기관 및 단체의 인가 또는 등록이 담당 부처와 법적 절차가 다르다고 지적하며, 교원의 임용이나 학사 관리 등에서는 구체적인 법령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인 감독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비판한다.

한국어 교육에 국한한다면 현재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의 관리 담당 주체 역시 분명하지 않다. 2,000여 개에 달하는 한글학교의 경우 외교통상부 산하의 재외동포재단과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국립국제교육원이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물론 재외동포재단은 한글학교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거나 교사 연수, 장학 사업 등을 맡고, 국립국제교육원은 교과서

(2008), 이병규(2008a, b) 등은 한국어 교육 관련 정책 과제 또는 학위논문, 소논문들이다.

보급 및 교원 연수를 주로 담당하여 업무를 구분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도 이에 관련되어 있고, 근래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립국어원 및 한국어세계화재단 역시 교재 연구 및 보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담당 부서가 많다는 점은 지원 및 운영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는 있다. 하지만 '교육'이 가져야 하는 규범성이나 보수성 역시 담보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행정 부서의 단일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전담 부서의 부재는 단순히 해외 기관의 지원 및 지도에서만 한계를 노출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 교재, 교육과정 등을 포함하는 교육 내적 차원에서도 많은 문제를 생성하기 때문이다. 교사의 양성 및 재교육 등을 통한 관리, 전문화된 교사의 확보를 통한 한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국내외의 한국어 교육 기관에 대해 지원을 하든 지도를 하든 일관성 있고 계획성 있게 기능할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 지원 체계의 확립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재외동포 대상의 한국어 교육이 단순한 민족어·모국어 교육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거주국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적응과 이를 통한 주류 집단으로의 진입과 성장을 꾀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다수의 국가에서 주로 한글학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은 많은 부분에서 점검되고 정비되어야 한다. 한글학교의 경우도 이들 기관이 앞의 3장 <표6>에서 보이듯이 몇몇 국가에 한정되어 설립·운영되고 있고, 규모가 작고 시설이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들 한글학교들은 정부 기관의 기준이나 안내 없이 거의 자발적으로, 종교 단체 등의 노력에 의해 형성되었기 때문에 각 국가별, 지역별, 설립 주체별로 교육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과정, 교재, 교사진의 전문성에서 많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잘 해내는 부분은 찾아내서 발전시켜야 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가능한 한 빨리 보완되어야 한다.

나. 한국어 교육 내적인 문제

한국어 교육 내적인 문제로는 교육과정 및 교사, 교재 등의 입장에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현재의 재외동포 대상의 한국어 교육이 주로 한글 학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전제한다면 가장 큰 문제는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학습할 기관이 없다는 점이다. 주로 주말에 이루어지고 적게는 2시간에서 많아야 6시간에 그치는 한글학교의 수업 시간으로는 학습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효율적인 학습을 기대한다면 보다 많은 수업 시수의 확보 및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한글 학교는 오랜 기간에 걸쳐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국가가 한국어 교육을 위해 기획하고 설립한 기관이 아니다. 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 차원 이상의 정부 지원의 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재외동포에 대한 명시화된 한국어 교육의 목적이 부재하여 한국어를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외국어일 수밖에 없는 한국어를 무작정 배우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왜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지와 배워서 잘 하게 되면 어떤 혜택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근거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목적이 없기에 세분화된 연령대별·학년대별 한국어 교육 목표를 기술할 수 없고, 교수-학습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각 단계(학년이든 숙련도 등급이든)별로 교수-학습할 내용을 선정할 수 없으며, 내용 선정이 되지 않기에 좋은 교재 역시 개발되기 어려운 문제로 이어진다. 이와 더불어, 한국에서 제작되어 제공되는 교재 역시 사용할 수 있는 근거조차 갖지 못하게 된다. 교재의 경우는 많은 연구자들이 반복적으로 지적해 왔지만, 다시 한 번 지적하자면 재외동포 수가 많은 만큼 국가별 이민의 역사가 다르고, 그들의 사회·문화, 경제, 정치적 상황이 서로 다른데 획일적인 교재의 사용은 효율적일 수 없으며, 극단적으로는 아예 사용 자체가 어려

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들이 현재 처한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고 반영하는 차별화된 교재의 개발이 재삼 강조되어야 한다.

교재와 관련하여 좀 더 부연하자면 학년별이든, 숙련도별이든 어떤 기준에 따라 학습해야 할 최소한의 어휘의 수와 구체적인 어휘 항목의 제시, 문법 요소의 개수 및 구체적인 항목의 제시가 있어야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할 것인데 이러한 지침이나 기준이 없다¹⁵⁾. 이러한 기준이 어느 정도라도 제공되어야 동일 교수-학습 대상을 위한-한 방향을 향한-다양한 교재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각기 다른 방향을 지향하는 내용으로 교재가 개발될 것이고 한국어 교육 자체의 발전 가능성도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배워야 할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학습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한국어 능력에 대해 확인하고 점검할 기준이나 방법이 없다면 곧 의욕을 잃게 될 것이다. 또한 배워야 할 이유와 배운 다음에 획득하게 될 보상이나 혜택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서 제시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재외동포 대상의 한국어 능력 평가 시험은 없다. 분명 외국인 대상의 한국어능력시험과는 구분되고 차별화되는 시험 도구가 개발되어야 한다.

5. 대안 마련을 위한 제언 -중장기적인 대안 제시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언급한 현황과 문제의 제기를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제기된

15) 이는 성인 외국인 대상의 한국어 능력 평가를 위한 S-TOPIK도 취업 목적의 EPS-KLT 및 B-TOPIK 시험의 경우도 유사하다. 예를 들어 S-TOPIK 1급의 경우 어휘 수는 800개라고 제시되지만 구체적으로 그 800개가 어떤 어휘인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럴 경우 수험자(학습자) 입장에서는 교재 개발자, 시험 준비 자료 개발자 등의 입장에서는 막연할 수밖에 없고 학습의 의욕마저 잃게 만들 수 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이미 몇몇 연구자에 의해 제기되고 제안된 바와 같이 재외동포 대상의 한국어 교육은 정부나 유관 기관의 다각적인 노력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이 있으며, 이에 대해 비교적 단기적인 대안들과 함께 중장기적인 계획과 대안 마련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본고에서는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교육과정이나 교재, 교사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연구자에 의해 충분히 제기되고 이들 문제의 해결을 위해 많은 제안들이 제시되었기에 다시 다루지 않고, 중장기적인 입장에서의 대안이 될 만한 몇 가지 점들을 제언하고자 한다.

재외동포 대상의 한국어 교육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전 국가적으로 공히 나타나는 현상으로써 연령이 높아지면서 한국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학습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비록 한글학교의 수는 늘어나고 있고 전체적인 학습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한글학교 내에서 유치·초등학교 저학년의 한국어 학습자 수는 많은데 초등 고학년에 이르거나 중학생이 되면서 그 수가 급격히 감소한다는 점은 우려할 만하다.

아무리 한국어 교육용 교재의 다양화 및 교사의 전문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등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학습자 수 자체가 감소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실제 지난 10여 년간 정부 및 유관 기관의 교재 개발 및 교사 연수 등¹⁶⁾의 노력은 실로 괄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각국 한글학교 운영 현황을 볼 때 학습자 수의 감소는 자못 심각하다.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고, 10대 중후반 대에 이르러

16) 이 기간 동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한 재외동포 교재(한국어 및 한국어 회화 1~8권) 및 교사용 지침서의 개발과 재외동포재단의 사이버 한국어 교실(www.teenkorean.net) 등의 on-line, off-line 교재의 개발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국립국어원이나 국제교류재단, 한글학회,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등을 통한 해외 한국어 교사 연수 역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학습자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은 국외에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한다.

그렇다면 중장기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첫 단추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필자는 그들이 '왜 한국어를 공부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명백하고도 타당한 답을 눈높이에 맞게 제시할 수 있을 때 그 답이 얻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냥 '한국인이니까'라는 민족주의적 애국주의에 호소하는 답은 어찌하면 이들에게는 그리 가슴에 와 닿는 이유가 되진 못할 것이다. 이미 이민 3~5세에 이르는 재일 동포나 재중 동포, 재러 동포들은 재미 동포들과는 다른 입장과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들 각각의 집단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목적'은 달라져야 한다. 즉, 각 국가별, 각 이민 세대별, 연령대별(학년별) 한국어 학습의 목적이 달리 세워지고 구체화되어야 한다. 한국인이어서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논리는 어찌하면 가장 당연하면서도 가장 비합리적이고 비설득적일 수 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강요하지 않으면서 한국어 교육이 보다 구체화된 각자의 필요에 의해 동기화될 때 비로소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애국심'일 것이다.

학습을 위한 '목적'의 설정은 왜 학습을 하고, 무엇을 학습해야 하고, 학습을 한 후에 무엇을 얻게 되는지를 명시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 무엇인가를 배우면 장차 어찌어찌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순차적으로 학습해야 하고, 학습 시기마다 구체적인 교수-학습 대상을 동기화하기 위해 왜 배워야 하는지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교육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역시 거주 국가마다 다를 수 있고, 도달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를 수 있으며, 그 내용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 될 것이다.

필자의 첫 번째 제언은 학습의 목적을 명시화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외 거주 동포들의 모국어 학습의 목적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까? 앞

에서 잠깐 언급한 바가 있지만 모국어이고 민족어이니까 알아야 한다는 당위성만으로는 학습 동기를 부여하기 힘들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간의 연구와 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 교육의 선언적 목적을 거칠게나마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자 한다¹⁷⁾.

첫째, 거주국 언어와 모국어 모두에 동일한 숙련도를 갖는다.

둘째, 완벽한 이중언어 구사 능력을 바탕으로 거주국에 대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적응하며, 향후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의 주류 집단으로의 진입과 성장을 꾀한다.

셋째, 양국의 교류 증진에 기여하고, 국제화 시대가 요구하는 유능한 인재가 된다.

위와 같이 선언적 목적이 기술되면 그 다음 단계는 이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적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즉, 지금 현재 한글학교 등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유치원생이나 초등 저학년생들에서부터 이 학습자들이 초등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성장하기까지의 각 단계별 아젠다(agenda)를 작성해야 한다. 이 아젠다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는 한국어 학습의 궁극적 목적과 단계별 도달 목표, 교수-학습해야 할 내용 항목의 선정과 배열 등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두 번째 제안은 학제별로, 예를 들어 유치부, 초등 저급(1~3학년), 초등 고급(4~6학

17) 본고에서는 일차적으로 다분히 선언적 의미를 갖는 통합적 목적만을 기술하여 제시하고, 재중, 재일, 재러, 재미 등의 개별 국가 대상의 차별화된 목적의 기술은 뒤로 미루기로 하겠다. 차별화된 국가별 목적의 기술이 필요한 이유는 각 국가별로 재외동포들의 거주 기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일본, 중국, 러시아는 이민 3세 이상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정치경제적,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르고, 북미 지역은 상대적으로 2~3세가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 동남아시아는 1~2세가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 등에서 구별이 필요하다. 통합적이고 선언적인 목적과 개별화된 목적 기술이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그에 따른 세밀화된 단계별 도달 목표는 보다 쉽게 만들어질 수 있고, 이어서 교수-학습 내용의 선정 역시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년). 중등, 고등 4개 등급으로 나누어 등급별 필수 학습 어휘 수 및 어휘 항목, 문법 수 및 문법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것이다.

이러한 아젠다 작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이 아젠다 작성의 '주체'이다. 누가 이 일을 주관하고 담당하여야 할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한국어 '교육'이라는 점을 제일차적 고려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국어 교육에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자체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고, 외국인이든 교포든 국제결혼 이주 여성이든 대상자별 교수법의 개발 역시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많은 연구자들이 교재 및 교수법 등을 개발하여 왔고,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외적 영역으로 시야를 확대한다면 한국어의 국외 사용 기회 확장이라든지 국외 한국어 사용자 수 증가를 위한 노력 역시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요약하면 한국어 교육은 그 내외적 영역에 대해 '연구적 접근', '교육적 접근', '정책적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그간 한국어(또는 내국인 대상의 그간의 용어대로 '국어')에 대한 연구의 주체는 개인으로는 국어학 연구자, 단체로는 국가기관으로서의 국립국어원 및 여러 학회 및 기관들이 있었다. 특히 국립국어원은 국어에 대한 규범 및 정책 관련 업무를 관장하여 왔다¹⁸⁾. 그리고 국내외 한국어 교육 진흥 사업이 주요 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아래의 각주 18)에서 보이듯이 국립국어원은 여러 주요 사업 중 '연구나 정책적 접근'에 대해서는 적임 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겠으나 과연 '교육적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국립국어원이 적절한 교육 주체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 교육적 접근에서의 주체는 무엇보다도 '교육'을 위한 목적의 기술과 이의 달성을 위한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교수-학습 내용을

18) 참고로 국립국어원은 언어정책 개발 및 규범 정비, 국어정보화 및 한국어 통합 관리, 실태 조사와 사전 편찬, 국어 문화유산 정비 및 홍보, 국어 능력 향상, 국내외 한국어 교육 진흥 등을 주요 사업 내용으로 선정하였다.
http://www.korean.go.kr/08_new/index.jsp '국어원 소개' 중 '사업소개'에서 인용.

선정하고 배열하는 일 또한 담당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덧붙여 질 것이 교사의 양성과 관리(재교육 등) 업무 또한 '방치'되어 있다는 점과 이미 국내에 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결혼 이주민 및 그들의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도 역시 이와 유사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고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지적들을 바탕으로 한다면 세 번째 제언은 국내외 한국어 교육 전반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주무 부서를 가능한 한 빨리 선정하자는 것이다¹⁹⁾.

외국어(재외동포들에게는 거주국 언어가 제1언어일 수밖에 없고, 한국어는 제2언어, 외국어일 수밖에 없다.)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할 때에만 학습을 한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이들 학습 대상자들이 한국어를 배움으로써 얻는 구체적인 이익, 유효성에 대해 명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즉 국의 동포 학습자들의 한국어 학습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이 따라야 하고 그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첫 단계는 보상을 제공할 대상 선정의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네 번째 제안은 학제별 시험 등을 개발하여 이 시험을 통해 초등학교 졸업이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에 해당하는 '(가칭) 한국어 능력 인증서'를 제공하고, 이 인증서를 보상의 기준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즉, 이 인증서를 소지한 사람은 국가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국 방문이나 국내에서의 한국어 및 문화 연수에 우선권을 제공한다는 지, 대학 입시 등에서 활용될 수 있다든지 하는 실질적인 보상이 뒤따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이고 장치적인 도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다른 효율적인 중장기적 제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필자가 굳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제언을 하는 이유는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 교

19) 이에 대해서는 최정순(2005)에서 (당시의 용어대로 하면) 한국어의 국외 보급 등의 정책적 부분은 문화관광부(국립국어원)가 담당하고, 교육의 내용에 대한 것이나 교사 양성과 관리 등의 업무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분리하여 담당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을 제안한 바 있다.

육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정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 국립국어원(2007a), 『세종학당 운영길라잡이』, 국립국어원.
_____ (2007b), 『2007 세종학당 백서』, 국립국어원.
- 김대성(1996), 「재일 한국인의 민족 교육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김신일·안귀덕(1998), 「재외 민족 교육 강화를 위한 사회문화적 한계 극복 방안: 재미 동포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중섭(2001), 「러시아 및 중국 지역 한국어 교육 실태 조사 및 지원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김호정(2007), 「재외동포의 한국어 사용 실태 연구 방향에 대한 일고찰」, 『한국어교육』 18(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73-100.
- 노운환(2008), 「재외동포교육기관의 한국어 교육 실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박갑수(2006),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의 오늘과 내일」, 이중언어학회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p.18-31.
- 안정현(2003), 「재외동포 교육용 한국어 교재 개발·공급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이병규(2008a), 「한국어 교육 정책 현황 및 추진 방향」,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8 춘계(제29차) 학술대회 발표집, p.362-389.
_____ (2008b), 「국의 한국어 교육 정책론 정립을 위한 논의」,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18차 국제학술대회 발표집, p.673-691.
- 조항록(2002), 「한국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연구: 한국어 교육 정책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_____ (2004),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의 정책의 실제와 과제」, 『한국어교육』 15(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199-232.
- 진동섭(2003), 『재외동포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최종봉(2001), 「재외동포 교육정책 분석」,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최정순(2005), 「국의 한국어 교육정책의 현황과 과제」, 『국의 한국어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한국어세계화재단.
- 한병천(1999), 「한국 재외동포 교육정책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재외동포재단(2007), 재외동포 교육기관 현황.

참조 사이트

-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est.go.kr/>
- 국립국어원 <http://www.korean.go.kr/>
- 국립국제교육원 <http://www.niied.go.kr/>
-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http://www.kice.re.kr/>